속리산국립공원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속리산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늘다람쥐, 솔나리 등 3,000여 종의 동.식물과 법주사, 화양서원 등 다양한 문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다람쥐와 망개나무를 깃대종으로 지정·보호하고 있습니다.

세조길 이란?

세조길은 맑고 시원한 계곡과 솔향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세조길이라는 이름은 조선7대 임금인 세조가 요양차 속리산으로 순행을 왔던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2016년 9월에 개통한 무장애 탐방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미션 참여 방법



1 미션을 수행한다.

마음에 드는 세조길 풍경을 오른쪽의
엽서 예시처럼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다.

2 자신의 SNS에 올린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자신의 SNS**에 아래 중 마음에 드는 **에티켓 내용(해시태그,#)**과 함께 올린다.

#속리산국립공원 #세조길 #탐방문화개선
#홍보하고 싶은 에티켓문구 선택

① #저지대탐방을 해요.
② #물고기에게 음식물을 주지 마세요.
③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요.
④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하세요.
⑤ #큰 소리를 내지 않아요.

3 미션 확인 후 기념품을 수령한다.

자신의 SNS를 보여주고
'**법주사탐방지원센터**'에서 기념품을 받아간다.

#속리산국립공원 #세조길 #탐방문화개선 #지정된탐방로를이용해요



세조길 국립공원 탐방 에티켓 안내

국립공원탐방 에티켓 책자를 따라 세조길을 걸어보세요!
책자 마지막 장에 있는 미션에 참여하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출발 세조길 문주

1 저지대 탐방을 해요!

정상 정복 산행은 몸도 힘들고 자연도 충분히 느낄 수 없습니다.
세조길을 천천히 걸으면 자연과 함께 숨쉬는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지대 탐방은 고지대에 살고있는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보호할 수 있어서 더욱 바람직합니다.

2 물고기에게 음식물을 주지 마세요!

사람의 침, 과자 등은 물고기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폐사와 수질 오염 등의 원인이 됩니다. 과일, 옥수수 등도 안됩니다.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물고기가 자연 속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쁜 눈으로 바라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5 큰소리를 내지 않아요!

야생동물이 큰소리(노래, 고성방가 등)를 듣고 놀라면 새끼를 키우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밥도 못 먹고 부모와 떨어져서 미아가 되기도 합니다. 또 큰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포식자를 만나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도착 세조길 전체 구간

저수지 수변

3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요!

탐방로를 벗어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벌, 뱀 등 야생동물과 마주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지정·관리하는 탐방로를 이용하면 안전한 탐방을 할 수 있습니다.

수변 쉼터

4 도토리는 다람쥐에게 양보하세요!

도토리와 밤 같은 나무의 열매들은 **야생동물의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특히 겨울잠 자는 동물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면 다음 해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나무의 열매들이나 꽃, 나물 등은 야생동물들을 위해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